A

Class II activator를 이용한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의 치험예

박양수, 김정태, 황현식, 김종철.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동양인의 경우 제 II급 부정교합의 빈도는 제 III급 부정교합의 빈도에 비하여 낮았으나 최근에는 제 II급 부정교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은 골격성, 치조성, 기능성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의 치료방법으로는 성장조절, 절충치료, 외과적 방법등이 있으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조절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기능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조직, 악골, 하악 과두 및 치아에 영향을 주어 골격적 부조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정 술식으로서 골의 형태가 비록 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개인의 유전적 양식의 범위 내에서 기능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기본원리이다. 본 증례는 과도한 수평, 수직 피개교합을 동반한 제 II급 부정교합 환자로서 분석 결과 사춘기의 활발한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class II activator를 이용하여 하악골 전방성장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Class II activator를 5개월간 장착한 결과 적절한 구치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상하악에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하였다. 상악에 Head Gear를 사용하여 구치의 근심이동을 방지하였으며 상하악의 alignment와 leveling 후 교합 안정화를 위해 상하 고무줄을 사용하였다. 본 증례는 activator를 이용하여 제 II급 부정교합을 개선한 증례로서 양호한 치료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A

설측 교정장치를 이용한 제 II급 부정교합의 치험예

박양수, 김정태, 황현식, 김종철.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교정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인 교정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측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설측 교정장치는 보다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측치면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시야가 부적절하며 치면 형태가 불규칙하여 정확한 브라켓 부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치료후의 이상적인 상태로 치아를 set-up한 후 모형상에서 resin base를 통해 브라켓을 부착한 후 구강내 간접부착해야 한다.

본 증례는 상악전돌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환자로서 class II molar key, large overjet, overbite를 보여 상악 치열과 연조직 돌출의 감소를 위하여 상악 제 1 소구치 발치를 계획하였다. 간접부착법으로 브라켓을 부착하고 초기 wire는 0175 Respond와 016 Ni-Ti를 Torque확보를 위해 0175×0175 TMA를 사용한 후 016×022 L-loop로 En masse retraction을 시행하였고, 하악에서는 016×022 S-S를 사용하여 finishing하였다. 부가적으로 상악전치 견인시 anchor perparation을 위해 HG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이로써 설측교정치료를 통해 과도한 overjet, overbite이 개선되었고 적절한 arch form을 형성하였으며 제 II급 구치관계와 양호한 교두감합을 이루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